

주간



Keep It Simple and Short

2019학년도 수특영독 W10(7~9)

영어 노베이스에서 100점으로 이르기 위한 영어 공부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단어, 해석(문장 단위), 문풀(지문 단위).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바로, 세 번째 요소인 '문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는 국어, 수학에 비해 문풀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죠. 단어,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어 문풀은, 사상누각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적당한 난이도의 영어 빈칸 지문 하나를, ebs 해석 말고 정성을 들여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잘 번역했다고 합시다. 그럼 글을 '이해'하는 데 우리는 한국인이므로, 큰 무리가 없겠죠. 그러면 문제를 푸는 '사고 논리' 자체는, 정말 스무살 지성인을 위한 수준일까요..? 대부분이 그 아래일 겁니다. 그러한 수준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현 절평 영어 체제에서 많아봐야 두 문제고, 이마저도 절평이기에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은 상황이죠. 다시 말해, 단어를 제대로 알고 이를 활용해 해석이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수준이면 절평 영어 1등급에 거의 근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본인이 '공부하기 쉽게 느껴지는' 문제 풀이에 집착하지 마시고, 빨라도 6평까지는 단어에 대한 고민,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해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고민을 많이, 아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문풀 논리를 익히는 것은 6평 후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고,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학생이라면 문풀 논리를 익히고 체화하는 건 한 두 달이면 됩니다. 제발, 수학 문제 하나를 두고 오래 고민하듯, 한 문장을 한 지문을 두고 어떻게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을 고민하세요.

그리고 이를, 'EBS 영어'로 하는 겁니다. 기출 영어만큼 지문의 문풀 논리가 좋은 지문이 많은 건 아니지만, EBS 영어 지문도 단어와 해석을 위한 '좋은 영어 지문'임은 맞으니까요. 무엇보다, 고3 내신의 시험 범위이고, 6, 9, 수능에 '똑같은' 지문이 7, 8개가 나오는데, EBS가 아닌 다른 교재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평가원 기출 제외)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EBS 연계 교재 3권의 1000지문 가까이 되는 영어 지문의 모든 단어와 해석을 공부하면, 절평 영어 1등급에 넘치면 넘쳤지, 부족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평가원 기출로 문풀 논리를 병행하며 체화하고 그냥 100점 맞으세요 ☺

명심하세요. 고정 100, 고정 1이 나오는 친구들 중에, 문법 용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많습디다만, '해석'을 시켜보면, 예외 1도 없이, 다 자연스러운 한국말로 곧잘 해석을 합니다.

1. EBS 연계 교재 해당 ‘강’을 시간을 재고 푼다. 본인의 실력과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문제 당 1~2분을 설정하고 푼다. 시간을 재고 풀어야 가장 집중을 잘한다. 뇌는.
2. 채점을 한다. 혹,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 많이 틀린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문풀의 기준은 평가원 기출.
3. 꼭, 이 자료를 보기 전 지문을 보며 ‘혼자’ 해석을 해본다. 제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다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해석이 잘 되는가, 객관적으로 본인을 체크한다. 모르는 단어, 잘 안 되는 해석 부분을 체크한다.
4. 자료의 요약, 단어, 변형을 보며 내용, 어휘, 변형 논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자료에 없으나 추가적으로 모르는 단어는 꼭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봐 찾아 적는다.
5. 각 문제 분석 페이지 다음에 있는 해석 공간에서 시간을 재고 해석을 한다. 본인의 실력, 지문의 난이도 및 길이에 따라 한 지문 당 짧게는 5분(1등급)~길게는 10분으로 꼭 시간을 재고 한다. 시간을 재고 해석해야 늘어지지 않고, 집중을 가장 잘한다. 뇌는.
6. 해석을 하다가 10초 정도 고민했으나 모르는 부분, 문장은 ‘비워두고’ 넘어가서 해석을 한다. 우선은 정해진 시간 내에 지문 하나를 다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7. Shean.T의 해석과 비교를 하며 맞추어 보고, 비워둔 부분을 Shean.T 해석과 검색 및 질문을 통해 해결한다. 이 비워둔 부분은 ‘빨강색’ 볼펜으로 채우는 게 좋으며, 그 부분을 본인의 ‘오답 해석 노트’에 옮겨 적는다. 이게 바로 본인의 비장의 노트.
8. 복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 주간의 KISS EBS를 끝내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구두로’ 다시 한 번 지문 해석들을 쭉 해본다. 이러면서 영어 단어, 표현, 문장 구조, 해석 능력이 자꾸 체화가 되는 거다. 한 파트(수특영어 유형편, 주제소재편, 테스트 이렇게 세 개의 파트 정도로 볼 수 있다)가 끝나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 복습 해석!
9. 급격히 향상된 어휘력, 해석력 그리고 EBS 연계의 도움으로 가볍게 1등급을 맞는다.
10. 여러 곳에 감사의 후기를 올려주면 정말 감사하다.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첫번째, ‘순차적으로’부터 살펴보자면,

1. 순차. 영어 한 문장이 있으면, 그 한 문장의 맨 끝을 앞으로 가져오는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소위, 그 유명한 ‘직독직해’를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아래 16학년도 수능 문장을 보시면,

It is likely that age changes begin in different parts of the body at different times and that the rate of annual change varies among various cells, tissues, and organs, as well as from person to person. (15.11.23)

a. 나이 변화는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시기에 시작하며 매년 변화의 속도 또한 사람마다, 그리고 다양한 세포, 조직, 기관에 따라 다양할 가능성이 높다. (X)

b. 가능성이 높다 / 나이 변화가 시작할 / 몸의 다른 부분에서 / 다른 시기에 / 그리고 매년 변화의 속도는 다양할 / 세포, 조직, 기관마다 / 또한 사람들마다. (O)

a의 해석은 사실상 해석이 아니라 ‘번역’이다. 이 일은 번역사가 하는 것이고, ‘독해’를 하는 수험생이 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빠르고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의미 파악’**이다. 따라서 b와 같이 앞에서부터 쪽 가면서, **‘본인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 & 구조 단위’**로 묶고,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실전적인 해석’이다.

B에서 볼 수 있듯이 포인트는 어떻게 한국어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이 영어 단어와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면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사를 잘 써야, 단어와 단어, 덩어리와 덩어리가 잘 연결된다. **이 연습을 많이 많이 하셔야 하고, 영어 고정 1등급은 해석을 시켜보면 이걸 잘한다.**

‘어디서 끊느냐’ 하는 것에 정답은 없다. 본인이 한 문장이 쪽 한 눈에 들어오고 의미 파악이 된다면 끊을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한 눈에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대충 쪽 가는 것은 킬러 수능 영어 문제를 푸는 데 그리 좋지 않다. 한국어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부분이 제일 좋고, 필자는 전치사, 관계사, 접속사 앞에서 주로 끊는다. 참고!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두번째, '자연스럽게'를 살펴보자면,

2. 자연. 어떠한 단어, 혹은 어떠한 의미 덩어리를 제발 본인이 외운 그 사전의 첫번째 뜻으로 마구 넣어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자. 물론, 우선 해당 단어의 사전 첫번째 뜻을 외우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이기는 하다. 하지만 해석을 할 때에는, 그 외운 뜻을 바탕으로 문맥상 어떻게 자연스럽게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꿀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전환 과정이 없이 그냥 외운 뜻을 넣기만 하게 되면, 한국어인데 한국어가 아닌 무엇이 되고, 뇌가 어색하게 느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게 된다.

예를 들어, establish라는 단어는 '설립하다'로 외웠을 것이다. 이 '설립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의 기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맥에 따라 '맞는 한국어'로 바꿔 해석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Establish order(질서)라고 했다고 하자. 한국어로, '질서를 설립하다'라는 게 말이 되는가? 설립은 보통 재단, 기관을 설립하지 질서를 설립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하면서 '질서'와 어울리는 한국말은? 바로 '질서를 확립하다.' 또한, established experts가 있다고 하자. 직역하면 '설립된 전문가들'인데, 역시나 이건 한국어가 아니다. 하지만, '설립된'을 통해 무슨 '느낌'인지는 아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와 연결시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떠올린다. '이미 설립된.. 이미 세워졌구나.. 전문가가 이미 설립돼서 자리를 잡았어..' 아, '이미 자리를 잡은' 전문가들이구나. '인정 받는', '저명한'까지 가도 우리가 없고 다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것이다. '쌘! 저명한이라뇨, prominent가 아닌데요?'라는 우매한 생각에서 벗어나 얼른 '이유 있는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다.

해석에 정답은 없다. '어울리는 지 아닌 지'만 있을 뿐. 아래 14학년도 B형(헬영어) 수능 문장을 보자.

Each year more farmland was devoured to build strip malls and neighborhoods with larger homes. (13.11.43)

매년 더 많은 농경지가 / 게걸스럽게 먹혀진다(?) / 길가 상점들을 짓기 위해 / 그리고 인근에 큰 집들을 짓기 위해

걸리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온다. 농경지가 게걸스럽게 먹혀진다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우선 기본적으로 'devour'가 '게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이라는 건 이미 외웠어야 한다. 다음 스텝은 이걸 어떻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다. 자 '상황'은 농경지를 상점과 집들로 바꾼다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was devoured를 '바꿨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의미가 명확하게 통하니까. 여기에 devour의 느낌까지 살리자면, '농경지를 갈아 엎다'까지 갈 수 있겠다. 황무지를 논으로 바꾸는 뜻이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개간'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고, 한국어가 좋은 친구들이라면 위의 '바꿨다'는 뜻에서 '전용된다'는 해석도 할 수 있겠다. 정답은 없다. 위와 비슷한 의미로 '본인이' 떠오른 단어를 쓰면 된다. 단, 한국어로 자연스러우면 된다. + 한국어로 자연스러우려면 'they, them'을 제발 '그들은, 그들을' 그만하고, 뭘지 파악해서 정확히 한국어로 풀어주도록 하자!

명심하자. 영어는 '언어'이고, '상식'이다. 한국어의 상식에서 움직이자.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세번째, '단순하게'를 살펴보자면,

3. 단순. 긴 문장은 정말 길다. 그리고 다른 모의평가도 아닌 '수능'을 보게 되면, 난이도가 쉬워도 대의파악(주제, 제목..)부터 한 지문에 몇 줄이 되는 긴 문장이 꼭 있다. 이렇게 긴 문장에서 보통은 지레 겁먹게 되고, 하나 하나 다 해석하려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더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긴 문장일수록, 어떻게 덩어리로 묶어 '핵심 단어'를 기준으로 '단순화'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아래 14학년도 B형(헬영어) 수능 빈칸 문장을 살펴보자.

This intentional error functions as an advance warning system, manned by the self-protection subself, providing individuals with a margin of safety when they are confronted with potentially dangerous approaching objects. (13.11.34)

어렵다. 길어도 긴 편이고, 단어도 만만치가 않다. 굳이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 고의적인 오류는 기능한다 / 조기 경보 체계로서, / 자기 보호 자아를 통해 인간이 사용하는, / 인간에게 약간의 안전을 제공하면서 / 직면했을 때 / 위험하게 다가오는 물체에.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수능 시험장에서 저 문장을 이 정도 수준으로 즉석에서 해석할 수 있는 수험생도 거의 없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오질 않는다. 이 full sentence를 어떻게, 덩어리 별로 핵심 단어를 콕아서, '단순화'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장에 대한 '실전 해석'이다. 이에 따라 재구성 해보면,

이 고의적인 오류는 기능한다 / 경고 시스템으로 / 인간이 사용하는 / 안전을 제공하면서 / 위험한 물체에 직면했을 때

'진하게' 처리된 단어가 내용 전달의 '핵심'이라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내가 '단순화'하여 이해해야지 만이 읽고나서 무슨 말인지 기억에 남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저에는, 잘 살펴보면, 역시 각 덩어리를 잇는 '조사'에 핵심으로 걸리는 단어를 고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고의적 오류는 기능한다. 뭐로서(as)? 경고 시스템으로서. 뭐하는? 인간이 사용하는. 뭘 제공하면서? 안전을. 언제? 위험할 때. 이런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단순화' 해석은 실전적 해석으로, 본인의 해석력을 늘려야 하는 공부에서는(이 EBS 지문을 통한 해석 공부처럼), 웬만하면 단순화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고, 다 자연스럽게 해석해보려 연습하자. 역설적으로,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해석할 줄 알아야, 다 파악을 하고 뭐가 중요한지 알아서, '단순화'한 해석이 된다.

Shean's KISS EBS

CAUTION

해당 자료의 지문 자체를 제외한 모든 내용
즉, 요약, 변형 포인트, 어휘 정리, 직독직해의 내용은
Shean.T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Shean.T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특히, 과외 혹은 학원 등에서 '한 부'만 구매한 뒤
이를 출력하여 다수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사교육이지만 그래도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제해주시고,
과외 혹은 학원 등에서 다수에게 이 자료를 배포할 경우,
인원수만큼 구입을 하시거나,
sheanlee23@gmail.com으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혹 본인이 다니는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위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신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필자가 잘 못 먹고, 잘 못 자가면서 만든 창작물을,
단지 전자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해당 자료에 해당하는 저자의 무료 강의를 유튜브에서 공개합니다.
'Shean 영어' 'Shean EBS' 치시면 나오니 '구독'해주세요.
자료와는 별개로 자비를 들여 정말 무료로 공개하는 강의이니,
추가적인 여러 요청을 들어드리는 것은 조금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Shean.T 드림.

Due to the **variability** in responses for mail-in surveys, it's often necessary to send **follow-up** mailings. Such mailings may be **administered** in several ways. In the simplest, **nonrespondents** are simply sent a letter of additional encouragement to participate. A better method, however, is to send a new copy of the survey **questionnaire** with the follow-up letter. If potential respondents have not returned their questionnaires after two or three weeks, the questionnaires have probably been lost or misplaced. Receiving a follow-up letter might encourage them to look for the **original** questionnaire, but if they can't find the questionnaire easily, the letter may be **good for nothing**. The methodological literature strongly suggests that follow-up mailings provide an effective method for increasing return rates in mail surveys. In general, the longer a potential respondent delays replying, the less likely he or she is to do so at all. **Properly** timed follow-up mailings, then, provide additional **stimuli** to respond.

* mail-in: 우편에 의한



1. 우편 설문 조사를 할 때에는 후속 우편을 보내야 함. Caution: 보낼 때 설문지 다시 넣어 보낼 것!
2. Cause: 후속 우편을 받으면 '아 그 설문지~'하고 설문지를 찾아보지만, 잃어버렸기에 아무 소용 없음
3. 후속 우편을 통해 답변율을 높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음



1. 어휘들이 참 괜찮은데, 마지막 덩어리가 글의 일관성(consistency, coherency)을 해친다..



1. variability: 가변성, 다양성
2. follow-up: 후속 조치
3. administer: 관리하다, 운영하다
4. a nonrespondent: 비응답자
5. questionnaire: 설문지
6. original: 본래의
7. good for nothing: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8. properly: 적절히
9. stimuli: 자극, 동기

Due to the variability in responses for mail-in surveys, it's often necessary to send follow-up mailings. Such mailings may be administered in several ways. In the simplest, nonrespondents are simply sent a letter of additional encouragement to participate. A better method, however, is to send a new copy of the survey questionnaire with the follow-up letter. If potential respondents have not returned their questionnaires after two or three weeks, the questionnaires have probably been lost or misplaced. Receiving a follow-up letter might encourage them to look for the original questionnaire, but if they can't find the questionnaire easily, the letter may be good for nothing. The methodological literature strongly suggests that follow-up mailings provide an effective method for increasing return rates in mail surveys. In general, the longer a potential respondent delays replying, the less likely he or she is to do so at all. Properly timed follow-up mailings, then, provide additional stimuli to respond.

* mail-in: 우편에 의한

우편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의 가변성 때문에, / 후속 우편을 보내는 것이 보통 필수적이다. / 그러한 우편은 여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 가장 단순한 형태로, 비응답자들은 그저 추가적인 참여 독려 편지를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은 설문지를 새로 보내는 것이다 / 후속 편지와 함께. / 만약 잠재적 응답자들이 설문지를 답장하지 않았다면 / 2, 3주 후에도, / 설문지를 잃어버렸거나 어딘가 잘못 두었을 것이다. / 후속 편지를 받는 것은 받는 이들이 원래 설문지를 찾도록 할 수도 있지만, / 만약 그 설문지를 쉽게 찾을 수 없다면, / 그 편지는 아무 소용 없는 것이다. / 방법론적 연구는 여실히 보여준다 / 후속 우편 보내기가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고 / 우편 설문조사에서의 응답 비율 증가로. / 일반적으로, 잠재적 응답자가 답장을 더 늦출수록, / 응답자는 답할 가능성이 더 낮다. / 적시에 보낸 우편은, 그렇다면, 응답할 추가적인 동기를 제공한다.

To balance energy in with energy out, eating behaviors must be **counterbalanced** with ending each meal and allowing periods of fasting between meals. Being able to eat **periodically**, store fuel, and then use up that fuel between meals is a great advantage. **Relieved of** the need to **constantly** seek food, human beings **are free to** dance, study, converse, wonder, fall in love, and concentrate on **endeavors** other than eating. The between-meal interval is normally about 4 to 6 waking hours — about the length of time the body takes to use up most of the readily available fuel — or 12 to 18 hours at night, when body systems slow down and the need is less. As is true for the “go” signals that stimulate food **intake**, a series of many hormones and **sensory nerve** messages along with products of **nutrient metabolism** send “stop” signals to **suppress** eating.

* fasting: 금식 ** sedentary: 주로 앉아서 하는

Summary

1. 신체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먹는 시간과 공복 시간이 균형이 맞아야 함
2. 식량을 계속 구할 필요가 없어서 인간은 다른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됨
3. 공복 시간은 낮보다는 밤이 길며, 호르몬이 ‘먹자’ 혹은 ‘그만’ 신호를 보내 식욕을 조절 함

KEY Point

1. 도대체가 요약을 보면 알겠지만 2번이 전혀 1, 3번과 연결이 되지 않는, 글의 일관성이 1도 없음..
2. “stop” 했을 때 그만 먹어야 하는데 계속 먹게 돼서 문제 πππ

Vocabulary

1. counterbalance: 균형을 잡다
2. periodically: 주기적으로
3. relieved of: ~을 면한
4. constantly: 지속적으로
5. be free to v: 자유롭게 ~하다
6. endeavor: 노력
7. intake: 섭취
8. sensory nerve: 감각 신경
9. nutrient: 영양소
10. metabolism: 신진대사
11. suppress: 억제하다

Shean's KISS EBS

수특영독 7강: 흐름, 2번

To balance energy in with energy out, eating behaviors must be counterbalanced with ending each meal and allowing periods of fasting between meals. Being able to eat periodically, store fuel, and then use up that fuel between meals is a great advantage. Relieved of the need to constantly seek food, human beings are free to dance, study, converse, wonder, fall in love, and concentrate on endeavors other than eating. The between-meal interval is normally about 4 to 6 waking hours — about the length of time the body takes to use up most of the readily available fuel — or 12 to 18 hours at night, when body systems slow down and the need is less. As is true for the “go” signals that stimulate food intake, a series of many hormones and sensory nerve messages along with products of nutrient metabolism send “stop” signals to suppress eating.

* fasting: 금식 ** sedentary: 주로 앉아서 하는

To balance energy in with energy out, eating behaviors must be counterbalanced with ending each meal and allowing periods of fasting between meals. Being able to eat periodically, store fuel, and then use up that fuel between meals is a great advantage. Relieved of the need to constantly seek food, human beings are free to dance, study, converse, wonder, fall in love, and concentrate on endeavors other than eating. The between-meal interval is normally about 4 to 6 waking hours — about the length of time the body takes to use up most of the readily available fuel — or 12 to 18 hours at night, when body systems slow down and the need is less. As is true for the “go” signals that stimulate food intake, a series of many hormones and sensory nerve messages along with products of nutrient metabolism send “stop” signals to suppress eating.

* fasting: 금식 ** sedentary: 주로 앉아서 하는

섭취 에너지와 소비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 섭식 행동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 / 각 식사를 끝내는 것과 식사 간 금식 시간 사이에. / 주기적으로 먹고, 연료를 저장하고, 그 연료를 식사 간 쓰는 것이 가능하면 / 이는 큰 이점이다. / 지속적으로 식량을 찾아야 하는 필요에서 벗어나, / 인간은 춤추고, 공부하고, 대화하고, 궁금해 하고, 사랑에 빠지고, 다른 노력에 집중할 자유가 있다 / 먹는 것 이외에. / 이 식사 간 간격은 보통 깨어 있는 4~6시간이고 / - 신체가 기존에 이용 가능한 연료의 대부분을 다 사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 - 밤에는 12~18시간이다, /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식욕이 적어지는 때인. / 음식 섭취를 자극하는 “진행” 신호와 마찬가지로, / 많은 호르몬과 감각 신경 메시지는 / 영양 신진대사의 산물과 더불어 / “멈춤” 신호를 보낸다 / 섭식을 억제하기 위해.

Colleges use **price discrimination**. In 1995, for example, Johns Hopkins University began offering aid according to the student's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attending the university. Johns Hopkins wanted to attract academically gifted students who would **major in humanities** but might attend other universities. These students had relatively elastic demand curves for education at Johns Hopkins, **given** the **availability** of **substitute** universities. By **granting** them an extra \$3,000 in aid, the university was able to increase **enrollment** in that group by 20 percent. However, Johns Hopkins did not worry about losing **prospective** pre-med students, whose demand curves for education at Johns Hopkins were relatively inelastic. Because most of these students were already **hooked on** its pre-med program, a price increase would not **knock** many **out**. Johns Hopkins cut this group's aid by \$1,000 per student and still increased net revenue. Today, this pricing strategy is being tried out at colleges and universities all over the nation.

* price elasticity of demand: 수요의 가격 탄력성(한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 정도) ** pre-med: 의과 대학 예과[의예과] 과정



1. 존홉은 인문학에 재능 있는 친구들이 가격 탄력적이라는 걸 활용해 보조금 지급 → 등록을 높임
2. However, 존홉의에 오려는 친구들은 가격 비탄력적이므로 보조금을 줄여도 순이익 타격 나
3. 오늘날 이러한 가격 차별 정책이 여러 대학에서 사용됨



1. 존홉의가 짱이다!



1. price discrimination: 가격 차별
2. major in: ~을 전공하다
3. humanities: 인문학
4. given: considering
5.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
6. substitute: 대안의
7. grant: give
8. enrollment: 등록(율)
9. prospective: 유망한
10. hooked on: ~에 빠져 있는
11. knock out: ~을 나가 떨어지게 만들다

Shean's KISS EBS

수특영독 7강: 순서, 3번

Colleges use price discrimination. In 1995, for example, Johns Hopkins University began offering aid according to the student's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attending the university. Johns Hopkins wanted to attract academically gifted students who would major in humanities but might attend other universities. These students had relatively elastic demand curves for education at Johns Hopkins, given the availability of substitute universities. By granting them an extra \$3,000 in aid, the university was able to increase enrollment in that group by 20 percent. However, Johns Hopkins did not worry about losing prospective pre-med students, whose demand curves for education at Johns Hopkins were relatively inelastic. Because most of these students were already hooked on its pre-med program, a price increase would not knock many out. Johns Hopkins cut this group's aid by \$1,000 per student and still increased net revenue. Today, this pricing strategy is being tried out at colleges and universities all over the nation.

* price elasticity of demand: 수요의 가격 탄력성(한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 정도) ** pre-med: 의과 대학 예과[의예과] 과정

Colleges use price discrimination. In 1995, for example, Johns Hopkins University began offering aid according to the student's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attending the university. Johns Hopkins wanted to attract academically gifted students who would major in humanities but might attend other universities. These students had relatively elastic demand curves for education at Johns Hopkins, given the availability of substitute universities. By granting them an extra \$3,000 in aid, the university was able to increase enrollment in that group by 20 percent. However, Johns Hopkins did not worry about losing prospective pre-med students, whose demand curves for education at Johns Hopkins were relatively inelastic. Because most of these students were already hooked on its pre-med program, a price increase would not knock many out. Johns Hopkins cut this group's aid by \$1,000 per student and still increased net revenue. Today, this pricing strategy is being tried out at colleges and universities all over the nation.

* price elasticity of demand: 수요의 가격 탄력성(한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 정도) ** pre-med: 의과 대학 예과[의예과] 과정

대학에서는 가격 차별을 사용한다. / 예를 들어 1995년, 존홉 대학교는 지원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 학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 대학에 다니는. / 존홉은 공부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길 원했다 / 인문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 하지만 다른 대학에 가려고 하는. / 이러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수요 곡선을 그렸다 / 존홉 교육에 대해, / 대안이 되는 타 대학의 등록 가능성을 고려할 때. / 이들에게 3000 달러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 존홉은 해당 집단의 등록율을 20% 늘릴 수 있었다. / 하지만, 존홉은 장래 유망한 의예과 학생들을 놓치는 것은 걱정하지 않았다, / 이들의 존홉 교육에 대한 수요 곡선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었다. / 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미 의예과 프로그램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 등록금 상승이 많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었다. / 존홉은 이 집단에 대한 지원금을 1000 달러 만큼 삭감했음에도 / 순 이익은 증가했다. / 오늘날, 이러한 가격 책정 전략은 대학에서 시도되고 있다 / 국가 전역에 걸쳐.

Shean's KISS EBS

수특영독 7강: 어법, 4번

Learning about color is a step-by-step process of **observation**, memory, and training that teaches us that seeing is a creative process involving the entire mind. What is ultimately learned is that color continues to be personal, relative, elusive, and hard to define. How we see a color is as **varied** as its context because our perception of color is **seldom** as it actually appears in the physical world. A change in a color's neighbor results in us seeing that color differently because of the **mutual** influences that colors have on **one another**. This means there can be no orthodox rules of color. We may know the actual **wavelength** of a certain color, but we will hardly ever perceive the color as it **physically** is. When a group of people **simultaneously** looks at the same color, there is no way to know how each individual actually perceives the color.

* elusive: 파악하기 힘든 ** orthodox: 정통의, 공인된



Summary

1. 색깔에 대해 배우는 것은 단계적이고 창의적인 관찰의 과정
2. 색깔은 실제 세계에서 보이는 그 색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보이는 것



KEY Point

1. 진부 및 노의미



Vocabulary

1. observation: 관찰
2. varied: 다양한
3. seldom: 거의~않다
4. mutual: 상호 간의
5. one another: 서로
6. wavelength: 파장
7. physically: 물리적으로
8. simultaneously: 동시에

Shean's KISS EBS

수특영독 7강: 어법, 4번

Learning about color is a step-by-step process of observation, memory, and training that teaches us that seeing is a creative process involving the entire mind. What is ultimately learned is that color continues to be personal, relative, elusive, and hard to define. How we see a color is as varied as its context because our perception of color is seldom as it actually appears in the physical world. A change in a color's neighbor results in us seeing that color differently because of the mutual influences that colors have on one another. This means there can be no orthodox rules of color. We may know the actual wavelength of a certain color, but we will hardly ever perceive the color as it physically is. When a group of people simultaneously looks at the same color, there is no way to know how each individual actually perceives the color.

* elusive: 파악하기 힘든 ** orthodox: 정통의, 공인된

색깔에 대해 배우는 것은 단계적인 과정이다 / 관찰, 기억, 훈련의 / 보는 것이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 전체 정신과 관련된. / 궁극적으로 배우는 것은 바로 색깔이 지속적으로 개인적이고, 상대적이고, 파악하기 힘들고, 정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 우리가 색깔을 보는 방식은 그 상황만큼이나 다양하다 / 우리의 색깔에 대한 인식이 실제 세계에서 보이는 것과 거의 같지 않기 때문이다. / 한 색깔 주변의 변화는 우리를 그 색깔을 다르게 보게 한다 / 색깔이 서로에게 가지는 상호 영향 때문에. / 이는 색깔에 정해진 규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는 특정 색깔의 실제 파장을 할 수는 있지만, / 우리는 그 색깔을 실제 그 자체로서 인지하지는 거의 못할 것이다. / 한 집단的人们이 동시에 같은 색깔을 바라볼 때, / 알 방법이 없다 / 각 개인이 실제로 그 색깔을 어떻게 인지하는 지는. /



In his book, Arthur Gordon **relates** the story of a club which one of his friends belonged to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 **It was comprised of** several bright young men who had **genuine** talent for writing. (C Each time they met, one of the men would read a story or essay he had written, and the rest of the group would dissect and criticize it. The viciousness of their comments prompted them to call themselves the Stranglers. On the same campus, some women formed a group, and they called themselves the Wranglers.) (B They also read their **manuscripts** to one another, but instead of showering criticism on one another, they tried to **find** positive things to say. Every member was given encouragement, no matter how weak or undeveloped her writing was. **The results of the two groups' activities came to light** twenty years later when the careers of the classmates were examined.) (A Of the talented young men in the Stranglers, not one of them had **made a name** for himself as a writer. But half a dozen successful writers emerged from the Wranglers, even though they had not necessarily shown greater **promise**. And some of the women had **gained** national **prominence**, such as Pulitzer Prize-winner Marjorie Kinnan Rawlings.) **For most people, it's not what they are that holds them back.** It's what they think they're not. The Stranglers undoubtedly made one another suspect that they were **unqualified** to write, and in time they became convinced of it. Who knows what kind of talent was **squashed** by their **negativism**? But if someone in the group had **taken the initiative** to be **nurturing** instead of negative, maybe another Hemingway, Faulkner, or Fitzgerald would have emerged and given the world another library of masterpieces.

* dissect: 세밀히 분석하다 ** viciousness: 잔인함



1. 글쓰기 동아리 A(Strangler): 각자 써오면 서로 물어뜯기만 함 vs. B(Wrangler): 서로 칭찬만 해 줌
2. 20년 후, A에서는 아무도 작가로 성공하지 못한 반면, B에서는 유명한 작가 많이 나옴
3. A는 부정적 사고로 될려고 했던 것도 안 된 거임. B처럼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했으면 잘 됐을 걸?



1. 변형: 순서. A집단과 B집단의 비교, 그리고 그 결과(A)로 이어지는, 그리고 이를 대명사로 명확하게 이어주는 관측 좋은 순서 문제! 역시 부정 부정보다는 긍정 긍정이 짱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 relate: ~을 이야기하다
2. be comprised of: ~로 구성되다
3. genuine: 진짜, 진실된
4. manuscript: 원고
5. come to light: 밝혀지다
6. make a name: 이름을 떨치다
7. promise: 유망함
8. gain prominence: 명성을 얻다
9. hold back: 억제하다
10. unqualified: 자격 없는
11. squash: 짓누르다
12. negativism: 부정주의
13. take the initiative: 주도하다
14. nurture: 육성하다

Shean's KISS EBS

수특영독 7강: 장문, 5~6번

In his book, Arthur Gordon relates the story of a club which one of his friends belonged to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 It was comprised of several bright young men who had genuine talent for writing. Each time they met, one of the men would read a story or essay he had written, and the rest of the group would dissect and criticize it. The viciousness of their comments prompted them to call themselves the Stranglers. On the same campus, some women formed a group, and they called themselves the Wranglers. They also read their manuscripts to one another, but instead of showering criticism on one another, they tried to find positive things to say. Every member was given encouragement, no matter how weak or undeveloped her writing was. The results of the two groups' activities came to light twenty years later when the careers of the classmates were examined. Of the talented young men in the Stranglers, not one of them had made a name for himself as a writer. But half a dozen successful writers emerged from the Wranglers, even though they had not necessarily shown greater promise. And some of the women had gained national prominence, such as Pulitzer Prize-winner Marjorie Kinnan Rawlings. For most people, it's not what they are that holds them back. It's what they think they're not. The Stranglers undoubtedly made one another suspect that they were unqualified to write, and in time they became convinced of it. Who knows what kind of talent was squashed by their negativism? But if someone in the group had taken the initiative to be nurturing instead of negative, maybe another Hemingway, Faulkner, or Fitzgerald would have emerged and given the world another library of masterpieces.

* dissect: 세밀히 분석하다 ** viciousness: 잔인함

In his book, Arthur Gordon relates the story of a club which one of his friends belonged to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 It was comprised of several bright young men who had genuine talent for writing. Each time they met, one of the men would read a story or essay he had written, and the rest of the group would dissect and criticize it. The viciousness of their comments prompted them to call themselves the Stranglers. On the same campus, some women formed a group, and they called themselves the Wranglers. They also read their manuscripts to one another, but instead of showering criticism on one another, they tried to find positive things to say. Every member was given encouragement, no matter how weak or undeveloped her writing was. The results of the two groups' activities came to light twenty years later when the careers of the classmates were examined. Of the talented young men in the Stranglers, not one of them had made a name for himself as a writer. But half a dozen successful writers emerged from the Wranglers, even though they had not necessarily shown greater promise. And some of the women had gained national prominence, such as Pulitzer Prize-winner Marjorie Kinnan Rawlings. For most people, it's not what they are that holds them back. It's what they think they're not. The Stranglers undoubtedly made one another suspect that they were unqualified to write, and in time they became convinced of it. Who knows what kind of talent was squashed by their negativism? But if someone in the group had taken the initiative to be nurturing instead of negative, maybe another Hemingway, Faulkner, or Fitzgerald would have emerged and given the world another library of masterpieces.

* dissect: 세밀히 분석하다 ** viciousness: 잔인함

그의 책에서 AG는 한 동아리의 얘기를 꺼낸다 / 위스콘신 대학교에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속했던. / 이 동아리는 몇 명의 총명한 젊은 남자들로 구성되었다 / 글쓰기에 대한 진정한 재능이 있었던. / 만날 때마다, 이들 중 한 명이 자신이 쓴 이야기나 수필을 읽었다, / 그리고 동아리의 나머지 인원들은 이를 분석하고 비판했다. / 이러한 논평의 잔인함은 이들이 자신들을 Strangler(교살자)라고 부르게 했다. / 같은 대학에 몇몇 여성들이 동아리를 만들었다, /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을 Wrangler(논쟁자)라고 불렀다. / 이들은 또한 서로 자신의 원고를 읽었고, / 서로에게 비판을 쏟아 부는 대신, /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 모든 일원이 격려를 받았다, / 아무리 글이 보잘 것 없거나 세련되지 않더라도. / 두 동아리 활동의 결과는 20년 밝혀졌다. / Strangler의 재능 있던 남성들은, / 아무도 작가로서 입신하지 못했다. / 하지만 5, 6명의 성공한 작가가 Wrangler에서 등장했다, / 이들이 꼭 더 큰 전망을 보여주진 않았더라도. / 이들 중 몇몇은 국가적 명성을 얻었다, / MKR과 같은 풀리처상 수상자처럼. /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 그들 자체가 아니다 /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 바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 Strangler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서로 의심하게 했다 / 글을 쓸 자격이 없다고, /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에 확신을 가진 것이다. / 어떤 종류의 재능이 억눌렸는지 누가 알겠는가 / 그들의 부정주의에 의해? / 하지만 만약 그 동아리 중 누군가가 성장하려는 모범을 보였더라면 /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 또 다른 헤밍웨이와 같은 작가가 등장하여 세상에 또 다른 걸작들을 선물했을 지도 모른다.